



“제주 스님들 노후걱정 마세요”

태고종 제주종무원 승려복지 올 사업 착수

상조회 만들어 장례·의료비 등 후원 위안법회 열고 원로의견 중무 반영

교계의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노스님들의 복지가 제주도에서 시작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원장 수암·금봉사주지)은 승려노후복지 정착을 위해 상조회, 사후장례, 후원기금 조성, 원로스님 위안법회 등을 99년 중점사업을 설정하고 준비작업에 착수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이 추진하고 있는 승려노후복지대책 1차 사업은 상조회 결성이다. 종무원 산하 각 사찰들이 매월 일정한 회비를 내는 상조회는 노후복지 정착을 위한 인적·물적·재정적 기반다짐에 쓰일 계획. 이 상조회비는 무의탁스님과 노후가 보장되지 않은 도내 노스님들의 의료비 및 장례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현재 제주도내에는 70세이상 스님이 20여명이 있으나 대부분 노후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다. 또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지난해부터 연 2회 원로스님 위안법회를 실시하고 있다. 원로스님 위안법회는 즐거운 노후생활을 위해 마련됐지만 원로스님들의 고견이 중무행정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종무원측의 얘기다.

수암스님은 “상좌가 없는 스님들이 열반하면 숙인처럼 장례를 치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무엇보다 노스님들의 사후 장례식을 여법하게 치뤄드리는 것이 상조회 주된 목적”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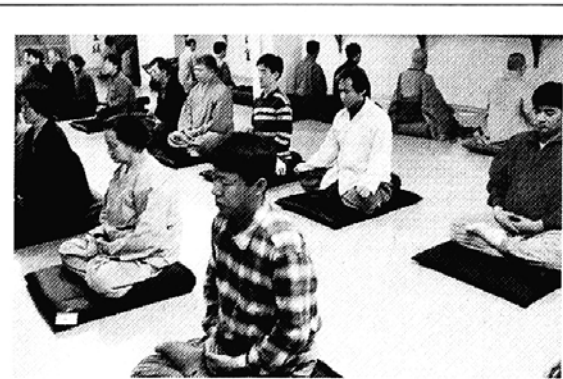
제주종무원은 승려노후복지 활동뿐만 아니라 대사회복지사업에도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이들위해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지난 1월 총회에서 종합복지타운 설립안을 확정하고 기본설계 및 운영계획을 준비중이다. 종합복지타운에는 대법당을 비롯 강당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치원 신생단체 사무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를 위해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종합복지타운 설립을 위해 그동안 1억5천여만원을 기금을 조성해 놓은 상태다.

이밖에도 태고종 제주종무원은 결식아동돕기 운동 일환으로 ‘생미공양운동’을 연중행사로 펼쳐며 소년소녀가장돕기, 양로원 위문 등을 비롯 각종 봉사 및 구호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승려노후복지 제도 정착 및 각종 봉사 구호활동 활성화를 위해 순수봉사단체인 (가칭)보현회를 4월경 결성한다는 계획도 갖고 있다.

태고종 제주종무원의 상조회, 사후장례 등은 그동안 철회돼 있던 승려노후복지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 (gamja@buddhopia.com)



75년 역사의 시민선방 맥을 잇는 선정회의 철야정진. 인근 직장인들의 발걸음도 끊이지 않는다.

선학원 시민선방 매월 철야정진

75년간 이어지는 ‘참선열기’

설을 며칠 앞둔 13일 오후 2시, 정적이 흐르던 선방에 사람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며 잠시 술렁인다. 이어 벽을 향한 좌선이 시작된다. 시간이 흐르자 어느덧 서울 안국동 선학원 시민선방에는 30여명의 재가수좌들로 가득 찬다.

다. 매주 토요일에는 정기법회를 봉행하고, 셋째주 토요일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에 불매까지는 철야로 정진한다. 1년여를 지나며 10명이던 회원이 30여명으로 늘어났다. 회원들 사이에는 물론 인근 직장인들도 한자리를 차지한다. 열린 공간이기 때문이다.

선학원 중앙선원장 성해스님의 법문으로 정진이 시작된다. “이 공부는 말로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대신 시켜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공부하되, ‘한강 모래알 수만큼의 세월’을 두고 공부하겠다는 자세로 임해야 합니다.”

“정진 시간이 기다려진다”는 조홍숙(32·씨앤씨 스튜디오)씨는 “바쁜 일상생활을 잠시 접어두고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 곧 나와의 만남인데 어찌 설레지 않겠느냐”고 공부의 즐거움을 말한다.

1924년 개설돼 오늘에 이르고 있는 시민선방의 맥을 잇는 수행단체는 선정회(회장 배광식·서울대치대 교수), 97년 9월 성해스님의 선학강좌에 동참한 불자들이 자선선방에 수행 모임으로 전환하며 선정회를 만들었다. 선사들의 발자취 어린 곳의 명맥을 잇고 많은 사람들을 참선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였

성해스님은 선정회의 든든한 후원자. 철야정진 때마다 함께 정진함은 물론 개인법담을 통해 수행을 지도한다. 봄, 가을 산철해스님의 선학강좌에 동참한 불자들이 자선선방에 수행 모임으로 전환하며 선정회를 만들었다. 선사들의 발자취 어린 곳의 명맥을 잇고 많은 사람들을 참선인연을 맺어주기 위해서였

(swjung@buddhopia.com)

신나는 ‘눈썰매’ 야외법회
(지도법사 한복스님)는 7일 제주시 어리목 눈썰매장으로 야외법회를 떠났다. 유치부와 초등학교 1학년~6학년 어린이 3백52명이 참가한 이날 눈썰매타기 야외법회에서 어린이불자들은 즐거운 동심속에 한껏 물성을 키웠다. 또 이날 야외법회에는 남주고등학교 불교학생회 회원과 어린이법회 교사들이 자원봉사로 참여했다.

무등산 온천지구 해제요구

중심사 신도·주민 “지하수 고갈” 주장

광주 무등산 중심사 주지인 영조스님 등 주민 50여명은 5일 윤림은천지구 지정 고시처분 해제 및 취소를 바라는 청원서를 광주시에 제출했다.

이들은 “온천지구 지정 이후 9년 동안 주변에 아파트·예식장·음식점 등이 대규모 들어서 개발여건이 바뀌었고 지하수 고갈 등 문제점이 발생했다”면서 “무등산 일원의 환경훼손을 불러올 개발계획을

취소하고 지구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청원서는 이밖에 △광주시민의 쾌적한 환경추구에 대한 기본권 제약 △지하수 침수에 따른 지반침하 △적송, 삼나무, 측백나무 등 식물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해인사 우회로 재설계

빠르면 내달초 착수

경남도가 추진중인 국가지원지방도 59호선 가야~불산간 2차로 축조공사에 노선 전면 재검토로 결론이 났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이 환경영향을 분석한 결과 심각한 생태파괴가 예상됨에 따라 노선의 전면재검토를 요청하는 최종회의를 지난해 12월 11일 경남도에 보내온 바 있다.

노선 재설계가 불가피하게 됐다. 이와관련 사업시행자인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한 담당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문제되는 구간을 비껴가는 식으로 노선을 재설계할 방침”이라며 “빠르면 3월초에 재설계를 발주하여 10월안에 끝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재설계에 따른 재정부담이나 민원을 고려해 새로운 노선이 미봉책에 불과할 가능성이 있어 환경단체 및 불교계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낙동강환경관리청은 지난해 10월 22일 보낸 1차 회신에 대한 경남도의 이의신청을 묵살하고 최종회신에서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따라서 59호선 도로는 전면백지화 내지

59호선 도로는 80m이상 대절토 구간이 두곳이나 되는 등 심각한 환경파괴가 예상돼 있었다.

이윤호 기자 (yhlee@buddhopia.com)

건봉사 2004년 완전 복원

울 대응전터 등 정비...2만여평 전적공원도 조성

고성군 1백55억 투입

건봉사가 2004년 복원돼 불자들이 그 위용을 드러낸다.

고성군은 2일 건봉사 복원과 안보관광지 조성사업에 총 1백55억원의 투입해 2004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문화재 정비 및 복원사업으로는 11억원을 들여 종각을 복원하고 연지 대응전터 나서암지 등을 정비한다.

유구 정비를 마쳤다. 내년부터 본격적인 건물 복원에 나서 2004년까지 대응전터 등 건물 29건을 복구하고 2만평의 전적공원을 만들어 각종 편의시설을 갖추게 된다. 이와 함께 호국불교 도량 건봉사에서 국가와 역사, 종교와 전경을 체험할 수 있는 안보관광 순례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또 7억원의 예산을 배정해 임진왜란 때 이곳에서 승병을 모집 풍기한 사명대사 기적비 정비 복원과 향토봉선루 등 전적비 2기 및 6.25 이후 강릉무장공비 침투사건 등 현재까지 안치된 1천

52기의 전사자 위패 봉안관을 건립한다.

건봉사는 자체사업으로 일제 때 민족사상 계몽의 중심지였던 불명학교 복원과 당시 사미승으로 불경과 학교교육을 받은 ‘서귀포 칠십리’ 작사가 조명암 선생의 사비건립도 추진하고 있다. 김지연 기자 (jygang@buddhopia.com)

불교교양대서 학회 창립

한국불교교육대 1백명 동참...세미나등 개최

불교교양대학을 졸업한 학인들이 체계적인 불교학연구와 발전을 위해 처음으로 불교학회를 창립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한국불교교육대학(대학원장 김지연)은 6일 대전 유스호텔에서 개최된 지도자대회에서 불교교육학회 창립총회를 열고 본격적인 연구활동에 들어갔다.

불교교육학회는 연 1회 학술세미나, 발표회, 토론회 등을 정기적으로 갖을 계획이며 회원들은 1년에

1편이상 불교학관련 논문을 제출해야 한다.

불교교육학회는 한국불교교육대학 졸업생 1백여명이 회원으로 결성됐으며 초대회장은 김공철 박사(사)가 선임됐다. 특히 불교교육학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천안 천불사 주지 인경스님이 연 3백만원씩 10년간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해 활발한 연구활동이 예상되고 있다. (02)821-0541

“모전석탑 문화재 지정”

제천시 향토사학자 촉구

제천 모전석탑 훼손방지와 연구를 위해 문화재로 지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충북연교리 금수산 중턱에 위치한 모전석탑은 남서쪽으로 10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데 회강 편마암 재료로 전돌을 쌓은 것이 특징이다. 7층 석탑이었던 교리 모전석탑은 도굴된 채 현재는 가로 4백5cm, 세로 4백5cm, 높이 2백14cm의 정방형 기단에 1층 탑신이 남아 있을 뿐이다. 석탑에서 북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에 주초석 및 건물기단 석축이 남아있다.

제천시는 모전석탑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도문화재로 지정신청을 하고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지연 기자

“부부·인생문제 상담 절반”

제주 자비의 전화 통계 IMF로 가정해체 영향

지난 한 해 동안 제주 자비의전화(원장 지오)를 통해 상담한 사람들은 절반이상이 부부문제와 인생문제에 대해 고민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법인 춘광 부설 제주 자비의전화의 (98년 상담통계자료)에 따르면 부부문제(25.2%)와 인생문제(23.8%)가 전체 상담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IMF 구제금융사태로 인한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담유형은 이밖에 정보문제(9.6%), 이성문제(9.5%), 가정문제(9.3%), 사회문제(8.0%), 정신건강문제(6.9%), 청소년문제(3.2%),

신체건강문제(3.0%), 종교문제(1.5%)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부부문제의 경우 ‘배우자의 외도(20.3%)에 이어 ‘배우자의 가혹’(14.9%) 및 이혼(14.2%) 등이 주요원인으로 등장해 IMF구제금융사태가 가정해체의 주요 원인이었음을 반영했다.

또 인생문제에 있어서도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36.3%), ‘삶의 의미 회의’(18.7%), ‘가치관의 혼돈’(9.9%) 등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아 경제난이 개인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밝혀졌다. 채권·채무 등 경제(20.7%), 직업(20.7%)문제가 나란히 수위를 차지한 사회문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김재경 기자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탐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 해천법사

“풍수원리에 맞지않는 주택이나 상가, 사무실등에 적용하면 재운과 복을 일으키는 운세로 바꾸어 놓고,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에 적용하면 생기있는 땅의 명당자리 산소로 변하게 하는 방법이 수록된 책자”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책자 내용

- 1 인간의 길흥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2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3 팔상탐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4 팔괘의 상장에 대한 설명
- 5 12품 팔상탐주의 종류별 설명
- 6 팔상탐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7 팔상탐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8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9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 10 음택(산소)풍수에 적용하면 현재의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 불탑다라니의 신비
- 11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의 산소적용방법
- 12 이장의 문제점과 그해결 방안으로서의 황동판 팔괘만다라와 팔괘불탑다라니 처방비법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 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 해천법사

『상기책자를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이책은 영가의 장례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2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내용

- 1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 2 인간의 길흥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 3 영가천도는 왜 필요하며 해주는이안 하는가?
- 4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 나는가?
- 5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일체지 영가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수 있는 묘법은 무엇인가?
- 6 특별 천도제에 사용되는 방편은 무엇인가?
- 7 각 방편들의 내용설명 및 사용방법.
- 8 집안에서 하는 영가 천도 기도방법.
- 9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 10 특별 천도제를 지내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상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두가지의 크고 불가사의한 작용을 일으키고 있는,.....

“팔괘(八卦) 만다라 액자의 신비(神祕)”

우연히 발견된 팔괘 만다라 액자의 신비스러운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

◎ 만다라는 제물보살님과 신(神)들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역 공간으로서 이는 살아 있는 우주의 삼라만상 그 자체이며, 우주의 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다라가 있는 곳에는 항상 우주의 충만한 생기(生氣)가 가득 모여 있습니다. 집안에 만다라를 걸게 함은 이러한 우주의 기(氣)가 집안에게 가득 차게 합니다. 그러나 만다라 자체만 걸어 놓으면 상스러운 우주의 생기가 그 안에서 그대로 머물고 있는 상태로 지속되기 때문에 이 기(氣)를 끌어내어 집안 전체에 기(氣)를 고르게 확산시키는 방법으로 팔괘를 도입하여 합일시킨 결과, 놀랍게도 불가사의하고 신비스러운 작용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팔괘 만다라 액자

◎ 소재
· 팔괘 : 고급 나무 목판 판각형
· 만다라 : 알미늄판에 직접 색채 도안 조성
※ 그 위에 유리보다 더 깨끗하고 투명하며 깨지지 않는 영구적인 특수기법처리

규격 : 45cm x 45cm

◎ 보급가 : ₩ 300,000 ⇒ ₩ 150,000
(그동안 30만원에 보급했던것을, 이제 15만원에 보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급처 : **성지관음회** (회장 해천)

경기도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30-1(능원빌딩 3층)

전화 : (0335)34-9490, 34-9491

야간 : (0342)706-3060

신비한 작용

첫째 가정, 사무실, 사업체 등에 걸어 놓은 결과 사익한 기운을 추방하고 불길한 운세를 흡수시키면서 악하고 침체된 기(氣)를 활성화시키고 강화시켜 사업이 활발해지고 재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음식이나 기계 등에 걸어 놓으니, 외부의 좋은 기를 끌어당기는 영향 때문인지 고객과 돈을 불러들이고 있습니다.

둘째 집안의 현관, 거실, 안방에 걸어 놓으니 집안 전체에 흐르는 기(氣)의 영향이 완전히 차려지는 작용이 일어났습니다. (이 실험을 직접 본 집에서는 밤마다 깔아놓았던 동판은 모두 걸어내고 있습니다.)

◎ 팔괘 만다라의 수백 차단 실험은 2명의 수백 전문가를 초빙하여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실험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서 불가사의한 이 현상을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였습니다.

◎ 팔괘 만다라 액자는 아름답고, 고급스러운 외관을 갖추고 있어 어느 가정이나 사무실에 걸어 놓아도 어울리는 분위기를 자아내도록 조성되었습니다.

· 불자들간의 선물·생일선물·기념선물·집들이 선물
· 연말연시 선물 등으로도 단순한 액자가 아닌 행운과 재운과 건강을 불러오고 보장해주는 액자라는 점에서 좋은 선물될 것입니다.

물론 우선적으로 자신의 집에는 편히 걸어 놓으시는 것을 잊지마십시오!